

서울시, 4차 산업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결사로

서울시 '문래동 수질 사고 백서' 발간

인력 실태조사·분석 용역

인재 수요 흐름에 따라 집중 양성 인력 미스매칭 줄여 인재난 해결 취업 연계 넘어 창업까지 포함

서울시가 4차 산업 분야에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미래혁신 인재 양성 관련 인력 실태 조사·분석 용역'을 진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2020년 2월까지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서울 지역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신규 인력 공급 미스매칭이 발생해 기업들이 인재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혁신 인재 양성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시청에서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특화기술 인재 1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특화기술 인재와 외국인 창업가 등 기술창업을 주도할 혁신인재 1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10~11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혁신성장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단기 공급이 가능한 실무형 인재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급인력은 대학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 정책은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이 수립됐으나 서울시는 산업별 육성거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

된 밀착형 기술 인재 양성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취업 연계까지만 고민하기보다 교육을 통한 창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내년 2월까지 4000만원을 투입해 미래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주요 과업 내용은 ▲AI, IT/SW 관련 산업 및 기업의 직무·역량 기반 인력 수요 조사 ▲정부, 대학, 민간교육시설의 관련 인재 양성사업 현황 ▲해외 선진국 핵심인재 양성사업 및 시스템 사례 조사 ▲주요 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3월까지 '서울시 인재양성 마스터플랜' (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장기 미래 인재 육성·지원 방안에는 과제별 중장기 로드맵과 단계별 목표관리 계획이 제시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는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과 대책 등을 정리한 '문래동 수질 사고 백서'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백서에는 수질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과 수습과정,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사항, 서울시 전 지역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등이 담겼다. 시는 민관합동조사단 위원들의 의견과 제안, 대응 매뉴얼 내용도 부록에 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사고 전후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의 수질관리와 관망관리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요소 제거에 선제적으로 나서려는 것"이라며 "백서는 서울 전역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백서는 도서관, 자치구, 시 산하기관 등에 배포된다. 일반 시민을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으로도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넥스트로컬 OT 및 발대식. /서울시

서울시, 지역 청년 창업팀에 2000만원 지원

47개팀 86명과 협약식

서울시는 지역 기반의 청년 창업가 42개팀에 초기 사업 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2일 오후 2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넥스트로컬: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1차 경연대회에서 초기 사업비 지원자로 선정된 42개팀 86명의 청년과 협약식을 맺는다.

협약식은 ▲선정자 시상식 ▲서울시-운영기관-참여자 간 3자 협약체결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및 사업비 집행 안내 ▲참여자 네트워킹 파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넥스트로컬은 만 19~39세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을 한 경우 사업평가 과정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1차 경연대회에 총 81개팀이 참여해 42개 팀이 선정됐다. 이중 4개팀은 최대 2000만원, 16개팀은 1500만원, 22개팀은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의 청년 창업가들은 5개월간 춘천·영월·의성·상주 등의 지역에서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기간 공통 교육과 팀별 지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시는 내년 4월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모델이 검증된 팀에게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전담예술가 손길에 낚은 가게가 작품으로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 연결 선정 가게 최대 100만원 지원

#. 서울 강북구 삼양로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새벽 5시 30분에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발소가 있다. 황해이발관이다. 베테랑급 이발실력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낡은 시설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다. 노후한 황해이발관이 서울시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의 손길을 거쳐 확 변신했다. 군데군데 벗겨졌던 유리창 시트지는 반백살 이발사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깔끔한 디자인으로 교체됐고, 가기가 꺼려졌던 화장실은 개선 공사를 마치고 한결 깨끗해졌다.

서울시는 2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년예술가 사업 결과물을 공유하는 '2019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 추억담긴 가게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황해이발관을 비롯해 우리가게 전담 예술가들의 솜씨가 발휘된 결과물들이 소개된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은 서울시가 회화·전시·공예 등 예술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활동 결과물(황해이발관). /서울시

야를 전공한 청년예술가를 지역 소상공인과 연결해 간판·벽화 등 점포인테리어부터 공간리모델링, 브랜드와 로고 디자인·상품패키지 제작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프로젝트. 선정된 가게에는 최대 100만원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별도의 전시회를 연다. 이달 3~8일 영등포구 아츠스테이 갤러리, 20~27일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광장에서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들

의 작품을 특별 전시로 만나볼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가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사업"이라며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등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청년예술가에게 다양한 일 경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 1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점포에 크리스마스 장식 용품들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임대주택 제공

가스차단기·핸드레일 등 맞춤형 설계

서울의 발달장애인 32명이 길게는 33년, 짧게는 11년 동안 생활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벗어나 독립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주택' 24호에 32명이 입주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육체·정신적 장애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들이 입주하는 집에는 현관·욕실의 문턱이 제거돼 있고, 안전손잡이와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대형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주거 지원체계를 구축한 거주지원 모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첫 입주주택은 커뮤니티 시설 3호, 동대문구 장안동 8호, 구로구 오류동 5호, 양천구 신정·신월동 8호 등 총 24호다.

서울시는 '주거코치'를 통해 설계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주하는 32명은 시설 폐지를 앞둔 장애인 거주 공간에서 살던 이들이다. 평균 23년을 시설에서 보냈

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장애인들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80%에 달하고 무연고 1인 세대도 52%나 돼 공공임대주택 조차 지원받기 어려운 거주 취약계층"이라며 "시설이 폐지되면 다른 시설로 강제로 옮겨지는 등 시설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원주택을 통해 장애인이 본인 이 사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올해 68호를 시작으로 매년 70호씩 2022년까지 장애인 지원주택을 총 278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중 나머지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